



5면

미래로 도약하는 도시기반 조성 '집중'

전주매일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음 12월 21일) 제343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① 30일 오전, 익산 스포문화예술회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찾아가는 도민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김수홍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② 같은 날 오후,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도민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 참석자들이 '새만금 중심도시 군산'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 재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거부권 행사까지 소요된 시간으로는 최장 기간이다. 이태원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을 내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면하는 것처럼 알릴 수 있어 거부권 행사까지 최장기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익산·군산, 더 새롭고 특별해진다'

올 국제교류수업 확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찾아가는 도민보고회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자치도가 전주·완주, 김제·부안, 남원·순창·임실에 이어 30일, 익산과 군산을 찾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 익산·군산

김 지사, 자치도 비전 공유·도민들과 소통

익산 등 지자체들, 특례 활용 발전전략 발표

먼저,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익산 스포문화예술회관에서 익산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지역 유관 기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경과보고와 김관영 지사의 도민보고, 익산시 특례 발전 전략 설명, 결의문 낭독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128년 동안 사용한 옛 이름 대신 새 명칭을 달고 독자 권역으로 거듭난다. 333개의 다양한 특례 규정을 제정해 여러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특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익산의 경우 전북특별법 제2장 제1절 '농생명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관련 산업 생태계를 집적화한 지구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와 확실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돼 고속 성장을 이끄는 것이 골자다.

이에,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힘입어 농생명산업 발전 추진 동력을 힘차게 가동한다.

이날 익산시는 시민 앞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특례발전 전략을 소개했다. 시는 두 사업을 양쪽 날개로 삼아 전북특별자치도가 꿈꾸는 농생명산업 육성 이상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은 기존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 인근에 207만㎡(62.5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국제농식품비즈니스센터와 푸드테크 연구개발 허브와 함께 식품 연관 업종이 대거 입주하는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가 만들어져 미래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동물용의약품 신약개발 기반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목표다. 동물헬스케어·건강돌봄 신산업, 종합지원·협력체계 구축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시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전망이다.

같은 날 오후,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군산지역

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 시민들이 함께 자리하며 전북특별자치도로 향하는 뜨거운 기대와 관심이 모아졌다.

도민들에게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정 참여 확산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도민들을 찾아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임준 군산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경과보고, 신원식 군산시부시장의 특례활용 발전전략 설명으로 이어졌다.

군산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활력 저하 및 청년의 수도권 유출 심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새로운 기회가 되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시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활용하여 3대 분야, 6대 전략, 12개 대표사업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 맥아 및 지역 특산 주류 산업거점 단지 조성, 식물성 대체 단백질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해양문화유산 및 K-POP콘텐츠 연계 문화산업진흥지구, 군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으로 군산의 미래 먹거리가 되어줄 사업을 제안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삶과 행복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민들이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협력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익산시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다"며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GREAT) 익산의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협력해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특별한 기회로 특별자치와 새만금을 날개 삼아 더욱 높이 비상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군산=김관은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도내 초·중·고 46개교 선정... 작년보다 늘어

온라인·해외 방문·해외학교 초청 교류수업형 유형화 방침

오늘 46개 국제교류수업 학교 담당 교원 대상 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도내 초·중·고 46개교를 2024년 국제교류수업 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0개교에서 6개교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온라인 교류수업형 9개교 △해외 방문 교류수업형 35개교 △해외학교 초청 교류수업형 2개교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14개교, 군산 3개교, 익산 6개교, 정읍 1개교, 남원 2개교, 김제 5개교, 완주 3개교, 진안 2개교, 장수 3개교, 순창 3개교, 고창 2개교, 부안 2개교로 총 12개 지역이 참여한다. 학교급별로는 초 14개교, 중 14개교, 고 18개교다.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국내학교와 해외학교 간 지구촌 공동의 관심사를 주제로 정해 공동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온라인 공동수업을 시작으로 해외 현지에서 대면 교류 활동을 이어가며, 나아가 해외학교를 초청해 온·오프라인 결합 수업도 병행한다.

이에 따르면 2024년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온라인 교류수업형, 해외 방문 교류수업형, 해외학교 초청 교류수업형으로 유형화하고, 학교별 상황과 조건에 맞게 국제교류수업도 내실화한

다.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실시간·비실시간 5차시로 운영되던 온라인 수업을 올해는 실시간 8차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31일 2024년 국제교류수업 학교로 선정된 초·중·고 46개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인 정책기획과장은 "국제교류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미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해외학교 발굴·연계를 위해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 필리핀 카비테주, 일본 재외한국교육원 등과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무주에
기부하세요!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 원)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지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